

한국판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Heterophobia) 척도(K-HGM)의 타당화*

김 준 현¹⁾

유 금 란[†]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척도(Heterophobia Scale for Gay Male: HGM)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성애불편감(heterophobia)은 성소수자가 이성애자들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 공포, 회피를 의미한다. 이성애불편감의 하위 3요인은 남성 이성애자에 대한 '불편/회피', '단절', '거절' 예측이다. 한국판 HGM을 타당화하기 위해, 문항 번역, 문항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213명의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요인과 13개의 문항이 도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K-HGM의 적절한 적합도와 3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K-HGM의 신뢰도,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관련 척도들과의 관계(K-SOMS, K-MISS-G, SDS-9, RS)도 적절하였다. 결과적으로 K-HGM은 한국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이성애불편감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도구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논하며 연구 의의 및 한계점,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이성애불편감, 동성애자, 게이, 성소수자, 척도, 타당화

* 본 논문은 김준현(2021)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석사과정 졸업생

†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E-mail : kyu@catholic.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한국의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에 대한 미묘한 차별, 언어 폭력,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적인 시선은 만연한 편인데, 국가인권위원회(2014)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성소수자 200명 중 80%는 학창시절 교사에게, 92%는 다른 학생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경험하였고, 성소수자 516명 중 301명(41.7%)은 직장 내에서 성적 지향 관련 차별 및 괴롭힘을, 성소수자 948명 중 863명(91.0%)이 온라인 및 미디어 환경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혐오와 편견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성소수자 집단은 일상 속에서 유, 무형의 폭력에 쉽게 노출됐다. 그 중 남성 동성애자는 혐오성 범죄를 다른 성소수자 집단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데(Hudson-Sharp & Metcalf, 2016), 성적 지향에 대한 폭력과 전통적인 남성성이 가하는 폭력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이다. Thepsourinthone, Dune, Liamputtong과 Arora(2020)는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생태학적인 지도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다.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성의 거시적인 체계 하에 남성적인 성 역할을 강요받고, 이성애주의를 내면화한다. 이성애중심적인 사회는 남성 동성애자의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ty)에 대해 부정적이고, 차별적이며 편견 섞인 환경을 조성한다. 남성 동성애자는 이러한 사회에서 순응하거나, 여성성에 대한 공포를 느끼거나,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를 형성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 내 남성 동성애자는 두 가지의 폭력 형태를 경험한다. 첫째, 성적 지향에 대한 폭력이다. Sue(2010)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향한 미묘하고 간단하며 흔하게 일어나는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 모욕을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 정의하였다.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경험하고(Woodford, Kulick, Sinco, & Hong, 2014), 대학 내 캠퍼스(Woodford, Howell, Kulick, & Silverschanz, 2013) 혹은 직장(Desouza, Wesselmann, & Ispas, 2017), 상담 장면에서도 경험한다(김혜민, 유금란, 2021;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우사라, 유성경, 2017; Shelton & Delgado-Romero, 2013). 생활 환경에서 경험하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성소수자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PTSD 증상, 알코올 남용에 영향을 주는데(Robinson & Rubin, 2016; Scharer & Taylor, 2018; Woodford, Chonody, Kulick, Brennan, & Renn, 2015; Woodford et al., 2014),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나 거절 민감성이 높으면 우울과 불안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다(Feinstein, Goldfried, & Davila, 2012).

둘째, 남성 동성애자는 전통적인 남성성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다. 전통적인 남성성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강인함, 감정억제, 공격성, 지배성, 여성성 회피가 주로 거론되고, 대부분의 문화권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Connell, 2000). 전통적인 남성성은 여성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Levant, 2011;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성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성적'이라는 편견을 갖거나, 여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여긴다(Bosson & Michniewicz, 2013; Jewell & Morisson, 2012). 사

람들은 남성적으로 보이는 여성 동성애자보다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성 동성애자에게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Madon, 1997; Mitchell, Phipps, Voignier, Henson, & Ellis, 2001), 남성 이성애자는 남성 간의 성적(erotic), 비성적(non-erotic) 친밀 행동에 분노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Hudephol, Parrot, & Zeichner, 2010). 남성 이성애자 대학생은 여성적인 특징을 보이는 남성에게 ‘게이같다.’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Woodford, Howell, Kulick & Silverschanz., 2013). 이러한 편견과 폭력의 시초는 가족 환경에서 시작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남성이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면 안된다고 가르치며(Bos, Picavet & Sandfort, 2012), 이는 동성애 혐오에도 영향을 준다(Bucher, 2014).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강압적인 여성성 회피는 남성 동성애자에게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만들기 쉬운데, 여성적인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스러움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험이 많으면, 자살 생각, 우울, 불안의 증상이 더 높아진다(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전통적인 남성성의 여성성 회피는 남성 동성애자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많은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남성스러운 이미지(외모, 행동)를 형성하기 원하며 덜 여성적에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한다(Sánchez & Vilain, 2012; Taywaditep, 2002). 남성 동성애자는 자신의 남성성이 문제시될 때, 남성적인 고정관념을 따르며 여성성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Hunt, Fasoli, Carnaghi, & Cadinu, 2016). 이를 고려할 때, 남성성은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며, 여성성은 남성 동성애자의 부정적인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Brooks, Reysen & Shaw, 2017;

Sánchez & Vilain, 2012).

Thepsourinthone 등(2020)은 남성 동성애자가 사회의 남성적인 규범을 잘 따를수록,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가 크다고 보았다. 이는 Hunt 등(2016)이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가 여성성에 대한 거부감과 남성적인 자기 표현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는 맥락과 일치한다.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가 동성애자의 우울 및 불안, 자살 등(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2012; Fergusson, Horwood, & Beautrais, 1999)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성 동성애자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전통적인 남성성, 남성적인 규범의 순응도를 고려할 수 있겠다. 남성 동성애자는 사회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 전통적인 남성성 내의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내재화된 편견,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근접 주변 환경(가족 내외)의 폭력으로 인해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거절되는 느낌을 받기 쉬울 것이다.

Haldeman(2006)은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의 거부 반응을 예상하고, 이성애자와 상호작용을 피하는 현상을 이성애불편감(heterophobia)이라 정의하였고, Provence, Parent, Rochlen과 Chester(2019)는 이성애불편감이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게 가지는 거부감, 공포, 회피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성애불편감은 성소수자가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직접적인 차별, 간접적인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공포, 혐오, 불쾌감, 인지 도식(거절에 대한 예측), 이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행동(회피 및 거부)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하여 설명한다. 이성애불편감은 White와 Franzini(1999)에 의해 먼저 이성애부정성(heteronegativism)으로 명명된

적이 있다. 연구 과정 중 동성애 혐오 척도의 문항인 “동성애자와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를 “이성애자와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로 용어만 변경하여 이성애부정성의 구성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였는데, 이성애불편감은 질적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White와 Fanzini(1999)의 이성애부정성과 차이가 있다 (Provence, Rochlen, & Chester, 2014).

Haldeman(2006)은 이성애불편감이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방해한다고 보았다. 남성 동성애자로 하여금 이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성애자와의 지속적인 우정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들은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Chester(2018)는 이성애불편감이 남성 동성애자끼리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성애불편감이 높은 남성 동성애자는 같은 동성애자끼리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리며, 동성애와 관련된 모습이 드러나는 걸 불쾌하게 여기기 쉽다. 이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 커뮤니티에 속한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덜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Lewis, Derlega, Berndt, Morris, & Rose, 2002). 이는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Meyer(2015)가 언급한 사회적 지지 및 LGBT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강한 연결성과 이성원(2020)의 공동체 의식,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같은 맥락이다.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 맺고 있는 이성애, 동성애 커뮤니티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성애불편감은 Meyer(2003)의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성애불편감은 남성 동성애자에게 불리한 외부

사건(예: 전통적인 남성성의 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이성애자의 대인관계 거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개인의 부정적인 신념 및 태도(예: 내면화된 성적 낙인, 거절 민감성)이며, 이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예: 우울, 불안, PTSD 등)를 야기한다(Feinstein et al., 2012; Herek, 2004; Pachankis, Goldfried, & Ramrattan, 2008; Roberts, Austin, Corliss, Vander Morris, & Koenen, 2010). 내면화된 성적 낙인과 거절 민감성은 소수자 스트레스 모델(Meyer, 2003)의 개인 내적인 스트레스(proximal stress)로 분류되고, 이성애불편감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며, 두 변인은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와의 관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Provence, 2016). 특히, 가족이 성소수자에게 가하는 거절은 내면화된 성적 낙인과 거절 민감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개인의 자기주장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Pachankis et al., 2008), 남성 동성애자는 점차 가족 및 사회에서 자신의 소수자성을 밝히기를 꺼리고 고립을 경험할 것이다.

Provence 등(2019)은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척도(Heterophobia scale for Gay Male: HGM)의 개발을 통해 남성 동성애자의 남성 이성애자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여 이성애자를 거부하는지 이해하려 했다.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척도(HGM)는 불편/회피(unease/avoidance), 단절(disconnectedness), 거절 예측(expected rejection)의 3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남성 동성애자가 경험하는 불편감을 인지-정서-행동의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불편/회피’는 남성 이성애자에 대한 회피와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관련이 있다. ‘단절’은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에게 친밀함 또는 소원함

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거절 예측’은 남성 이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인지적 신념이다.

남성 동성애자 외의 성소수자 집단(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은 이성애불편감을 덜 경험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여성 동성애자는 반동성애적 폭력을 경험하고(이가희, 2010), 양성애자는 혐오와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받으며(Mulick & Wright, 2002; Wright & Wegner, 2012), 트랜스젠더가 받는 혐오(이혜민, 2022; Eom et al., 2022)를 고려하면,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는 이성애자와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고립감을 느끼고 이성애자와의 관계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집단에 이성애불편감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대상을 확장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남성성 외에도 남성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가족주의, 집단주의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집단주의 사회는 결속력이 강하여, 상호의존적인 관계 하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일커, 개인 생활의 침해가 잦다(이수원, 1995). 집단주의, 유교문화, 가족주의의 문화는 정신질환자, 그들의 친척,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낙인을 찍는다(Ran et al., 2021). 집단주의 사회구성원의 타 집단에 대한 낙인, 배척하는 태도는 성소수자에게도 적용된다. Bettinsoli, Suppes와 Napier(2020)는 23개국 간의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모든 나라에서 이성애자는 여성 동성애자보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중 비서구권 국가인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편이며, 남성 이성애자는 남성 동성애자를 특히 싫어하고, 여성 동성애자는 상대적으로 덜 싫어한다. 특히,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불명예스럽다고 여겨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동성애자라고 의심될 때, 가족은 자신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Lowe, Khan, Thanzami, Barzy & Karmaliani, 2018).

한국 역시 집단주의 문화권의 나라이며, 가족 집단의 유대감을 중요시하고, 자녀가 가족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살피는 체면의식이 강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장성숙, 2002). 동성애자는 가족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커밍아웃 당시 가족의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김진이, 2017), 한국에서 가족 내 구성원의 성적 지향을 수용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성 역할 규범의 정도와 성 역할 규범을 따르는 태도에 대한 상관이 타 국가에 비해서 적으나, 성 역할에 따른 차별적인 태도가 없진 않다(Bettinsoli et al., 2020). 즉, 한국은 전통적인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미치는 영향이 타 국가에 비해 적으나 사회 내 성 역할에 근거한 차별적인 태도는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학생은 미국보다 동성애에 대한 관용이 낮은 편이며, 특히 남성은 동성애에 대해 더 낮은 관용을 보인다(Um & Dong, 2019). 우리나라는 남성에게 군복무의 의무가 있는데, 군복무 중 전통적인 남성성이 재생산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군복무 중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에 의한 동성애 혐오를 가까이서 경험한다(정성조, 이나영, 2019).

본 연구에서 이성애불편감을 측정하며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려는 태도와 이성애불편감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응답자가 설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실제 의견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하며(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잠재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영향받기 쉽다(Morrel, 2008). 남성 동성애자는 이성애주의, 전통적인 남성성과 같은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 피해를 입었지만, 규범을 따르기 위해 왜곡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권의 국가는 서구의 국가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편인데(Keilor, Owen, & Pettijohn, 2001), Provence 등(2019)의 연구에서 이성애불편감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이성애불편감이 상관이 있다면, 한국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은 문화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남성 동성애자 자신의 존재는 집단주의와 사회적 규범, 남성성의 체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거부될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는 점점 이성애자에 대한 불편감이 커지고, 사회적 관계를 피하여 고립될 것이다. 연령과 무관하게 고립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꾸준히 언급되었고(이수비, 신예림, 윤명숙, 2022; 임연옥, 윤현숙, 2017), 사회적으로 소외된 남성 동성애자는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2003년에서 2014년간 미국 18개 주에서 보고된 자살 사망 통계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 총 621명 중 53.9%가 남성 동성애자였다(Lyons et al., 2019). 우리나라는 사망자 통계에 성적 지향이 없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자살 사망통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6년 친구사이 재단의 한국 LGB 건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로 경험하는 사회적 폭력으로 자살 생각이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보다 2~3배 높으며, 남성 성소수자는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자살 생각은 9.55배, 자살 시도는 18.75배가 높다. 여성 성소수자는 일반 인구와 비교한 자살 생각이 6.79배, 자살 시도가 7.27배 높은 것으로 볼 때,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 인구 또는 여성 동성애자보다 자살 위험성에 훨씬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남성 동성애자가 가진 이성애자에 대한 불편감을 이해하며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과 단절을 막고 지지하는 행동은 남성 동성애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 여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남성 동성애자가 얼마나 이성애불편감을 경험하는지 측정하는 HGM의 타당화는 충분히 의미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HGM 척도를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에게 실시하여 타당화하였다. 사전에 heterophobia 용어를 어떤 한글 단어로 변환할지 논의가 필요하였다. 변안 초기에 동성애 공포증, 동성애 혐오(homophobia)처럼 이성애 공포증 또는 이성애 혐오로 변안을 고려하였으나, heterophobia의 3개의 구성 요인이 공포증(phobia)의 특징인 혐오, 공포, 회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다음 이유를 들어 본 연구는 heterophobia를 ‘이성애불편감’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첫째, White와 Franzini(1999)는 Haldeman(2006)이 heterophobia로 명명하기 이전에 성소수자가 가지는 이성애자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이성애부정성(heteronegativism)’으로 사용하길 주장했다.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

정적인 감정의 범위를 더 포함하고 덜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Provence 등(2019)은 heterophobia의 현상에서 공포 정서에 더 초점을 두었으며, 'phobia' 용어를 사용할 때, 비병리학적인 두려움을 지칭하며, 임상적 진단의 함의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남성 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차별 경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정서 반응으로 설명되길 기대하였다. 이는 Herek(2004)이 homophobia 용어에 대해 기존 phobia의 임상적 정의와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한 주장과 동일하다 셋째, homophobia와 heterophobia를 사용하는 맥락이 다르다. 한채운(2013)은 국내에서 homophobia의 번역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phobia는 공포나 혐오로 번역하는데, 공포와 혐오의 차이점으로 공포를 가진 사람은 특정 대상에 있어서 패닉 상태에 이르고, 개인적으로 극복함을 알고 있으나, 혐오를 가진 사람은 구체적인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그 대상을 공격하고 제거하려는 태도로 설명한다. 위 맥락에 따라 homophobia가 국내에서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때 동성애 혐오증이 적합하다고 여겼다. 한국에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남성 동성애자가 경험하는 불편, 회피행동, 단절감, 거절 예측을 heterophobia라 칭한다. 이러한 개인 내적의 태도와 외적인 행동을 공포와 혐오만으로 포괄할 수 없고 homophobia 용어가 동성애 혐오로 명명된 맥락과 다르다. 본 연구는 '불편하다'라는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따위가 편하지 않다는 우리 말을 선택하여 heterophobia를 담고자 하였다. 이성애불편감이 이성애자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은 점을 아우를 수 있어 phobia의 변안은 혐오증, 공포보다 불편감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판 HGM 척도는 원 척도와 동일하게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는가? 둘째, 한국판 HGM 척도는 수용 가능할 만한 신뢰도를 보이는가? 셋째, 한국판 HGM 척도는 구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보이는가? 본 연구 문제의 가설로 첫째, 내면화된 성적 낙인은 K-HGM 척도의 불편 회피, 단절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둘째, 거절 민감성은 거절 예측과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바람직성은 K-HGM 척도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넷째,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K-HGM 척도와 높은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 1. 탐색적 요인분석

방 법

연구대상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남자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성 동성애자가 주로 가입한 H 카페, I 대형사이트, N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문을 2020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올렸으며, 자신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응답한 228명이 참여하였다. 10대가 19명(8.3%), 20대가 113명(49.3%), 30대가 74명(32.8%), 40대가 15명(6.6%), 50대가 5명(2.2%), 60대 이상(0.9%)이 2명 참여하였다. 이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음을 체크하거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6

명, 양성애자 7명, 무성애자 1명, 트랜스젠더 4명, 총 15명을 제외하였으며 총 21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연구 설명문을 읽고 동의한 후에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은 약 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절차

원 척도의 주 저자인 Markus M. Provence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척도 타당화에 대한 허가(2020년 5월 4일)를 받았다. 본 연구자가 1차 번역을 하였고, 영어-한국어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해외 석사학위를 취득한 1인과 남성 동성애자 1명에게 번역 및 역번역의 검토를 부탁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5명의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변안된 HGM의 20개 문항에 대한 낱어 및 오류가 있는지 파일럿 연구를 실시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려 하였다. 참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문항1, 2, 5, 6, 11, 16, 17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문항을 영어-한국어 이중 언어가 가능한 상담 전공 교수 1인에게 감수받았다. 감수 과정에서 번역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항2, 3, 5, 6, 11, 17을 9월 21일에 총 12명의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2차 파일럿 연구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문항 2, 5, 11은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문항2는 나 그대로 자신임에 자유롭다에서 내 모습 그대로 편안하다로 바꾸었고, 문항5는 이성애자 위주의 운동시설을 이성애자가 주로 다니는 실내운동시설(헬스장)으로 바꾸었다. 문항11은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를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로 변경하였다. 문항 3, 6, 17은 단어가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수정하였다. 문항3은 사

회적 환경에서 사회적 상황으로 바꾸었고, 문항6과 17은 상호작용을 소통으로 변경하였다. 본 과정에서 문항 내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를 같이 비교하였는데, 문항5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파일럿 연구 참여자는 동성애자만 대상으로 하는 운동시설이 없기에 이성애자가 주로 다니는 실내운동시설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운동시설을 헬스장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수영장이나 목욕탕과 같은 공간을 추가하거나 이성애자와 함께 운동을 한다면으로 내용 변경 의견이 있었다. 원 문항 훼손을 우려하며 문항5는 추후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제거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번안하여 구성된 20개의 문항으로 연구 1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연구 1)을 위한 설문지에는 이성애불편감 척도 원 20개의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조사를 위한 10문항, 총 30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문지 첫 장에 연구 참여 설명문을 안내하였고, 설문에 응답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하였다. 이성애불편감의 정의를 남성 이성애자에 의한 차별, 혐오로 인한 개인 내적의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라고 설명하였다. 설문 실시 과정 중 이전의 경험이 충분히 떠오를 수 있음을 알렸고, 설문 응답 중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자기 안전 관리 방안을 안내하였다. 연구에 사용하는 설문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연구 종료일 3년의 보관을 거친 후 파기될 예정이고, 설문 응답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오직 연구 목적으로 사용함을 알렸다. 참여자는 기프트콘 또는 성소수자 단체에 기부 보상을 선택할 수 있었다.

결 과

문항 분석

수집한 설문자료에서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골라내기 위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을 요약한 자료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문항 제외 기준으로 탁진국(2007)의 세 가지 조

건을 참고하였다. 첫째, 평균이 극단적인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가 작은 문항이다. 둘째, 문항 전체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이 낮은 문항이다. 셋째, 문항 제거시 내적 합치 신뢰도가 상승하는 자료이다.

문항5와 문항20은 평균이 각각 1.92, 2.38로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매우 아니다를 선택하여, 이성애불편감을 측정하는 문항

표 1. 문항 분석 (N=213)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R ²	하위요인 총점 문항 간 상관	전체 총점 간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문항1	3.70	1.87	.042	-1.140	.568	.79**	.69**	.852
문항2	3.90	2.00	-0.54	-1.326	.383	.67**	.56**	.858
문항3	3.82	2.09	.075	-1.360	.321	.64**	.55**	.858
문항4	3.89	1.91	-.109	-1.213	.502	.71**	.71**	.851
문항5	1.92	1.53	1.809	2.416	.314	.65**	.50**	.859
문항6	2.52	1.72	.999	-.013	.522	.73**	.67**	.853
문항7	3.65	1.74	.215	-.929	.474	.69**	.63**	.854
문항8	4.29	2.02	-.341	-1.210	.437	.61**	.58**	.857
문항9	4.38	1.73	-.178	-1.020	.478	.71**	.65**	.854
문항10	4.67	1.72	-.394	-.835	.467	.71**	.65**	.854
문항11	4.87	1.80	-.674	-.463	.151	.39**	.21**	.871
문항12	5.17	1.65	-.646	-.638	.384	.65**	.31**	.867
문항13	6.48	0.74	-1.604	2.864	.258	.43**	.16*	.867
문항14	5.65	1.37	-1.278	1.677	.404	.66**	.48**	.860
문항15	5.56	1.65	-1.065	.178	.311	.64**	.37**	.865
문항16	3.91	1.97	.081	-1.174	.495	.76**	.60**	.856
문항17	3.26	1.86	.420	-.972	.426	.71**	.58**	.856
문항18	2.66	1.82	.883	-.370	.519	.69**	.68**	.852
문항19	5.25	1.90	-.947	-.294	.300	.66**	.50**	.860
문항20	2.38	1.87	1.245	.360	.261	.53**	.37**	.866

* p<.05, ** p<.01

으로 보기 어렵다. 문항11, 문항13은 전체 총점과 상관이 각각 .21, .16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제거를 고려하였다. 1, 2차 파일럿 연구에서 문항5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여겨졌고, 문항11은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는 표현이 불안과 관련이 없으며 궁금한 감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항 분석결과와 1, 2차 파일럿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항5와 문항11을 제외하였으며 문항13, 문항20은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공통성 수치와 요인부하량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수집한 응답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 간 다중공선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을 다른 문항에 회귀하여 R^2 값을 확인하였다. R^2 값이 높을수록 문항 간 상관계수가 높으며, 이 경우 두 변수는 합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이순목, 2000). 본 연구에서는 R^2 값이 1.0에 가깝게 높은 문항이 없어, 문항 간 다중공선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응답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최대우도법(ML)으로 요인구조를 추출하기 위해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문항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왜도가 절대값 3미만이고, 첨도가 절대값 10미만이면, 다변량 정규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Kline, 2005). 총 18개의 문항 모두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며,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다변량 정규성도 검증되었다고 보았다.

자료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L)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사각 회전 방식 중

프로맥스(promax)를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 value), 누적분산비율이 55~65%가 되는 지점과 스크리 도표 결과를 확인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탐색적 요인분석

KMO (Kaiser-Meyer-Olkin)수치와 Barlett의 구형성 검증을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실시하였다. KMO수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KMO수치가 .90이면 상당히 좋으며, .80~.89면 꽤 좋다고 본다. .70~.79면 적당하다. 본 연구의 KMO수치는 .87로, 좋은 편에 속한다. Barlett의 구형성 검증 값은 χ^2 이 1314.76, $df=153$, $p<.001$ 이었다.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을 넘는 요인은 2개이며, 한 값은 .97으로 1에 근접하였다. 누적분산비율도 3요인시 58%를 넘어, 원척도와 같이 3요인을 고려하였다. 김수영(2016)과 김청택(2016)은 요인의 개수 선정에 대해 모형적합도 지수 RMSEA의 사용을 권하였는데, 김수영(2016)은 RMSEA가 .05, 김청택(2016)은 .08을 기준으로 보았다. 18개의 문항을 기준으로 2요인일 경우 RMSEA가 .08이며, 3요인일 경우 .075로 적합도 지수가 나아져 원척도와 같이 3요인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3가지의 문항 선정 기준을 잡았다. 첫째, 공통성(communality) 값이다. Beavers, lounsbury, Richards, Huck, Skolits와 Esquivel(2013)은 최소 공통성 수치의 절단값으로 .25~.40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공통성 수치를 초기 .30에 맞추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에

서 원 척도 문항의 탈락이 많아 척도가 훼손됨을 우려하여 .25보다 낮은 문항은 제거하였다. 둘째, 요인부하량 내에서 교차요인부하에 해당하는 값이다. 문항 내 다차원 요인모형에서 한 요인 내의 문항이 다른 요인에도 .3 이상의 수치가 두 군데 이상 나타날 경우 교차요인부하를 보인다고 말한다(Costello & Osborne, 2005). 교차요인부하가 나타나면 해당 요인만 측정한다고 볼 수 없기에 가능한 문항에서 제거한다. 셋째, 낮은 요인부하를 보이는 값이다. 요인 내에서 .3 혹은 .4 이상의 요인부하를 보여야 하며, .4 이하의 요인 부하값은 제거하도록 하였다. 위의 기준으로 총 5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문항15(.19), 문항19(.24), 문항20(.07)이 낮은 공통성을 보여 제거하였다. 교차요인부하를 보인 문항1과 문항3을 제거하

표 2. 한국판 HGM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요인1. 불편/회피 (4문항)			
18. 나는 이성애자 남성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81	-.05	-.02
6. 나는 대부분의 이성애자 남성과 소통하는 것이 긴장된다.	.79	-.06	.03
4. 나는 이성애자 남성들과 평상시 나누는 잡담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54	.15	.11
7. 이성애자 남성들과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쉽다.(R)	.52	.23	-.03
요인2. 단절 (5문항)			
10. 대부분 이성애자 남성들은 나와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R)	-.13	.77	.13
9. 이성애자 남성들과 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비슷하다.(R)	-.06	.74	.09
16. 나는 거의 이성애자 남성들로 구성된 동호회나 모임에도 쉽게 가입한다.(R)	.19	.63	-.20
17. 나는 사회적인 모임에서 이성애자나 동성애자 남성들과 거의 동일하게 소통하는 편이다.(R)	.24	.50	-.13
2. 나는 동성애자 남성과 이성애자 남성 사이에서 똑같이 내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있다. (R)	.19	.36	.01
요인3. 거절 예측 (4문항)			
14. 이성애자 남성들이 나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날 판단할 것이다.	.12	-.01	.71
13. 내가 동성애자인걸 알면 어떤 이성애자 남성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다.	-.15	-.04	.56
8. 나는 이성애자 남성들이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난폭하게 행동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12	.10	.54
12. 이성애자 남성들은 나의 커밍아웃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01	-.01	.53
고유치	4.70	1.87	.97
공통분산		58.00	
내적 합치도	.81	.79	.64

(R)=역채점 문항

였다. 문항2의 경우 단절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36으로 4보다 낮은 값에 해당해 제거를 고려했으나 다 문항의 탈락으로 원 척도의 훼손이 있음을 염려하고, 요인부하량이 크게 낮지 않아 문항2를 제거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묶인 13개의 문항의 공통성 값을 확인하니, 공통성 기준 값인 .3보다 낮은 3개의 문항이 있었다. 문항2(.26), 문항12(.27), 문항13(.29)으로 각 공통성 값이 낮은 편이 아니며, 요인부하량이 문항2(.36), 문항12(.52), 문항13(.54)로 .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문항 구성 요건에 충분하다 보였다.

표 2에 각 13개 문항의 부하량과 각 요인의 설명량을 제시하였다. 3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58.00%이었고, 1요인이 36.11%, 2요인이 14.40%, 3요인이 7.48%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과 한국판 HGM의 하위요인 문항 중 다르게 묶인 점이 있어 구체적으로 요인과 문항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단절 요인의 문항2, 9, 10, 16, 17은 잘

묶였으나 불편/회피 요인의 문항4, 6, 18에 단절 요인의 문항7이 같이 섞였다. 문항7은 원 척도에서 단절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으나, 문항의 내용에 나타난 상황(남성 이성애자와 시간을 보낼 때)에서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 사이에서 소원함을 느끼는 것보다 불편함이 더 크며, 해당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의 해석 가능성을 볼 때, 문항 7을 불편/회피 요인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거절 예측 요인이 문항12, 13, 14는 잘 묶였으나 불편/회피 요인의 문항8이 같이 묶였다. 문항8의 내용 중 '나는 이성애자 남성들이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안다면' 부분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드러남에 따라 거절 예측인 '난폭하게 행동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문항8도 거절 예측 요인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2에 각각 요인과 문항이 재설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 제거된 문항

	문항	제거 사유
1.	사회적 상황에서 나는 동성애자 남성들과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이성애자 남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	교차요인부하
3.	내가 유일한 동성애자일 때, 나는 불안함을 느낀다.	교차요인부하
5.	이성애자가 주로 다니는 실내운동시설(헬스장)에 간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	낮은 평균, 파일럿 연구
11.	이성애자 남성들과 소통할 때,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낮은 총점 상관, 파일럿 연구
15.	이성애자 남성들은 나의 성생활을 세세하게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낮은 공통성
19.	나는 이성애자 남성과 누군가와의 만남(예: 교제, 연애, 소개팅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낮은 공통성
20.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나는 이성애자 남성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조심한다.	낮은 평균, 낮은 공통성

연구 2. 확인적 요인분석

방 법

연구 대상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델 적합도 파악 및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성 동성애자 위주로 가입한 B모임, N모임, G카페, W웹사이트, A웹사이트 등에 202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10대가 7명(4.4%), 20대가 53명(33.1%), 30대가 93명(58.1%), 40대가 7명(4.4%), 50대 및 60대 이상 참여자는 없었다. 표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응답자가 겹치지 않도록 다른 모임에서 수집했으나, 수월한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참여가 어려움을 사전에 공지한 후 H카페, I 대형사이트에도 추후 모집하였다. 총 160명이 참여하였으며,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비동의자 1명, 여성 1명, 양성애자 3명, 트랜스젠더 3명, 총 7명이 제외하였고, 총 15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척도

Provence 등(2019)이 개발한 Heterophobia Scale for Gay Male(HGM)은 3개의 요인과 20개의 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자가 위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하여 3개의 요인과 13개의 문항, 7점 척도로 재구성되었다. 불편/회피 요인은 남성 이성애자에 대해 회피를 희망

하며, 부정적인 정서상태(불편감)와 관련이 있다. 단절 요인은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에게 친밀함 또는 소원함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거절 예측 요인은 남성 이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이다. Provence 등(2019)의 연구에서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불편/회피 요인은 .91, 단절은 .86, 거절 예측은 .86로 나타났다.

한국판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남성용

Lingiardi, Baiocco와 Nardelli(2012)가 개발하였고, 기존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만들었다. 임민경(2014)이 한국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이 척도는 남성과 여성척도가 다르다. 요인은 동일하나 성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6문항이 다르다. 임민경(2014)의 타당화에서 원 척도의 섹슈얼리티 요인이 빠졌다. 남성 척도는 2개의 요인과 17개의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정체성 요인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불편감을 측정한다. 사회적 불편감 요인은 타인에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측정한다. 임민경(2014)의 남성판 신뢰도는 사회적 불편감 .76, 정체성은 .82로 나타났다.

거절 민감성 척도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하였으며, 이복동(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했다. 2개의 요인과 6점 척도,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의 구성 요인은 거절 불안과 수용 기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절 불안 요인을 자신의 요구가 거절될까 불안해하는 마음을 측정하며, 수용 기대는 자신의 요구가 수용될 것이라는 예측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18가지 상황을 제시한다. 부모, 친구, 연인, 상급자 등 중요한 타인에게 요청을 하는 상황과 자신의 요구가 거절될까 불안한지,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한 상황 당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수용 기대 점수는 역채점된다. 거절 민감성 점수는 각각 상황에 거절 및 거부에 대한 기대 점수와 불안 정도의 곱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눈다.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87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단축형

Stöber(2001)가 원 척도를 개발하였고,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2015)가 번안 및 rasch 모형에 의거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축 타당화한 척도(SDS-9)를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2개의 요인, 9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긍정형 사회적 바람직성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바람직한 행동을 의미하고, 부정형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다.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위 언급한 순으로 .72, .47를 보였다.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Woodford, Chonody, Kulick, Brennan과 Renn(2015)이 LGBT Microaggression on campus scale을 처음 개발했고 박도담과 유성경(2019)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요인, 총 31문항과 6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타인이 본인의 성적 지향을 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의미한다. 개인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타인이 본인의 성적 지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마이크로어그레션이다.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정치, 교육, 미디어 등의 사회 제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이크로어그레션이다. 박도담과 유성경(201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위 언급한 순으로 .86, .86, .76이었다.

자료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분류한 13개의 문항과 동시 타당도를 살필 척도 4개와 인구통계학적 조사를 위한 설문 10문항, 총 104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총 13개의 문항을 기준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표집한 153명의 한국판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척도, 한국판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남성용, 거절 민감성 척도,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데이터를 코딩하였고, SPSS 23.0과 AMOS 22.0을 사용하였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3요인 모형(13 문항)의 평가 방법은 모형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을 사용하였다. TLI는 .934, CFI는 .947, RMSEA는 .059(신뢰구간 하위 90%, .033 ~ 상위 .082)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본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3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153)

기준지표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LOW	HIGH
94.716**	df=62	.934	.947	.059	.033	.082

* $p < .05$, ** $p < .01$

신뢰도 분석

한국판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척도(K-HGM)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85, 불편/회피 요인은 .81, 단절 요인은 .79, 거절 예측 요인은 .64으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는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타당도 검증

구인 타당도 확인

표준화된 개별모수 추정치로 구인 타당도(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Kline(2011)은 수렴 타당도의 기준으로 표준화된 요인 부하 추정치가 .5 이상, 변별 타당도의 기준으로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9 이하를 제안하였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2~.82로 기준치인 .5를 전부 만족한다. 더불어, 전체 평균분산추출량(AVE)이 .53이며, 개념 신뢰도 값(C. R.)이 .96으로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편/회피와 단절 요인의 상관은 .806($p < .01$), 불편/회피와 거절 예측 요인의 상관은 .290($p < .01$), 단절과 거절 예측 요인의 상관은 .191($p < .01$)로 나타났다. Kline(2011)의 기준에 따르면 불편/회피와 단절 요인의 상관은 .81으로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

표 5. 문항별 요인부하량과 요인 간 상관

하위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불편/회피	→ K-HGM18	.82
	→ K-HGM6	.72
	→ K-HGM4	.72
	→ K-HGM7	.55
단절	→ K-HGM17	.80
	→ K-HGM16	.78
	→ K-HGM2	.69
	→ K-HGM9	.60
	→ K-HGM10	.55
거절예측	→ K-HGM14	.66
	→ K-HGM12	.64
	→ K-HGM8	.53
	→ K-HGM13	.52
요인간 상관		
불편회피와 단절		.81**
단절과 거절 예측		.29**
불편회피와 거절 예측		.19**

* $p < .05$, ** $p < .01$

분할 순 있으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Fornell과 Larker(1981)의 타당도 산출식인 평균분산추출량(AVE)과 상관계수의 제곱을 이용하여 변별 타당도를 산출하였다. 각 요인의

표 6. 변별 타당도 산출

요인	C.R.	요인		
		불편/회피	단절	거절예측
불편/회피	.90	.68		
단절	.90	.65	.67	
거절예측	.85	.08	.03	.59

주. 대각선 성분은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량(AVE)을, 대각선 아래 성분은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의미함.

평균분산추출량(AVE)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모두 높아 변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회적 바람직성은 Provence 등(2019)의 연구의 결과와 같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동시 타당도 확인

동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내면화된 성적 낙인-남성용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단축형, 거절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7에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성애불편감과 내면화된 성적 낙인은 .30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성애불편감과 거절민감성은 .36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성애불편감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은 .40의 정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애불편감과 사

논 의

본 연구는 이성애불편감(heterophobia)의 개념을 새로 학술적으로 소개하며,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대한 불편감이 생기는 사회적 배경(예: 직, 간접적인 폭력,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전통적인 남성성에 의해 가해지는 성 역할 갈등)을 조명한다. 미국 표본으로 개발된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척도(Heterophobia scale for Gay Male; HGM)를 한국 내의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한국 내 남성 동성애자도 미국처럼 이

표 7. 동시 타당도

	내면화된 성적 낙인	거절 민감성	사회적 바람직성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이성애불편감	.30**	.36**	.00	.40**
불편/회피	.17*	.31**	.09	.33**
단절	.11	.25**	-.10	.26**
거절 예측	.51**	.28**	.05	.39**

* $p < .05$, ** $p < .01$

성애자에 대해 불편하다 여기는지 확인하려 하였다. 논의에서 연구의 절차와 결과 해석을 제시하며,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제언을 서술하였다.

먼저, 파일럿 연구를 통해 K-HGM의 문항이 한국 내에서 적절한지, 문항 내용의 모호성을 파악하였다. 두 번의 파일럿 연구와 번역 및 감수 과정으로 20개의 문항을 번안하였다. 파일럿 연구 과정과 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 5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남성 동성애자가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고, 문항 11은 문항 내용이 모호함을 이유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K-HGM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스크리 도표, 누적설명량과 모형적합도를 고려하여 원 척도와 동일하게 3요인 구조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원 척도와 다르게 문항7과 문항8이 다른 요인으로 묶여, 해당 요인과 문항 내용을 확인한 후 각 문항을 변경된 요인으로 재설정하여 총 13개의 문항을 최종 척도로 선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3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고,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3요인 모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K-HGM의 전체 Cronbach's α 는 .84로 안정적이었고, 하위 신뢰도 수치도 .64~.81을 보였다. 이로 연구 문제1인 척도의 3요인 구조와 연구 문제2인 척도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한국판 HGM의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 추정치가 .5 이상이며, 개념 신뢰도(C. R.)의 값이 .7 이상으로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K-HGM의 요인 중 불편/회피와 단절의 상관이 높은 편으로 변별 타당도의 확인이 필요하였다. 평균분산추출량(AVE)값과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

하였는데, 평균분산추출량의 값이 모두 높아 각 요인 간의 변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로 연구문제3인 본 척도의 구인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불편/회피와 단절의 높은 상관은 Provence 등(2019)의 원 척도 개발 과정과 일치한다. 더불어, Parent와 Rochlen, Wille(2019)의 연구에서 이성애불편감의 전조로 단절 요인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단절 요인의 수준에 따라 남성 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편/회피의 수준이 달라졌다.

K-HGM 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 동시 타당도 측정을 하였다. 내면화된 성적 낙인은 K-HGM의 불편/회피, 거절 예측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단절과는 상관이 없었다. 거절민감성은 K-HGM의 모든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K-HGM의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Provence 등(2019)의 연구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가 자신의 사회적 규범과 관계 없이 이성애불편감에 충실히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K-HGM 척도의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인 남성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신승배, 2013; Woodford et al. 2015; Yi, Lee, Park, Choi, & Kim, 2017). 연구문제3 중 가설 2, 3, 4의 변인 간 관련성은 확인되었으나 가설 1인 단절과 내면화된 성적 낙인은 상관이 낮아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은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내면화된 성적 낙인의 형성과 관계없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 개입되어, 이성애

자 사회에 적응했을 수 있다. 내면화된 성적 낙인은 개인이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를 학습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Herek, 2004; Shidlo, 1994). Bertinsoli 등(2020)은 한국이 성 역할 규범의 정도와 성 역할 규범을 따르는 태도의 연관성이 타 국가에 비해서 낮다고 밝혔다. 한국의 '꽃미남' 열풍을 보았을 때, 한국의 대중문화는 남성의 미용 기준으로 높은 여성성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다(Maliangkay, 2010). 여성적인 특징으로 치부될 수 있는 남성 동성애자의 모습이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단절과 내면화된 성적 낙인의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K-HGM은 3개의 하위 요인, 13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남성 동성애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하고 타당화된 도구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이성애불편감은 남성 동성애자의 상담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성애불편감은 차별, 혐오를 경험하는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에 대해 어떠한 불편감을 경험하는지 척도를 통해 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상담자가 남성 동성애자를 상담할 때, 이성애불편감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사전에 견지하고 남성 이성애자와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듣고 그 심경을 살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성애불편감은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적인 적응과 관련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이러한 적응을 위해 어떠한 대처를 주력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용한 대처에서 어려움이나 억압했던 정서는 없었는지 살필 수 있다. 척도를 이용하여 남성 동성애자가 불편/회피, 단절, 거절 예측 중 어떤 요인의 점수가 높은지 확인한다면 상담 개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성애

불편감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받고 이성애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고통을 드러냈을 때, Haldeman(2006)이 말하는 교정적 정서체험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상담자가 이성애자라면 이성애불편감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인 내담자가 추후 이성애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둘째, 남성 동성애자의 자살은 남성 이성애자에 의한 폭력, 이성애불편감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및 고립과 연관될 여지가 있다. 김형지와 김향숙(2018)이 정리한 성소수자의 자살 행동(자살사고, 자살시도)의 위험요인과 이성애불편감을 비교해보았다. 서술하는 요인들은 자살 시도 위험요인이다. '이성애자 친구와의 낮은 연락빈도'는 이성애불편감의 불편/회피 요인과 연관이 있어 보이며, '현재 지속 중인 이성애적 관계'는 이성애불편감의 단절 요인과 관련 있어 보인다. '커밍아웃 경험'은 이성애불편감의 거절 예측 요인과 관련 있어 보인다. 게다가 남성만 해당하는 요인으로 '동성애적 지향성으로 인한 언어적 학대'가 있는데, 이는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전통적인 남성성에 의한 폭력일 가능성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 성소수자의 자살 행동 보호 요인으로 '학사 학위'가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남성성의 특징 중 성취 지향적인 태도, 남성의 능력에 대한 기대(우성범, 2019)와 관련 있어 보인다. 전통적인 남성성의 관점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자살 시도 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자살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줄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를 향한 사회적인 폭력 및 차별이 이성애불편감을 매개로 하여 자살 시도 및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셋째, 본 척도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의 이

성애불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환경을 변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군복무 예정인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과 복무 후의 이성애불편감을 측정하는 중단 연구를 하여 군복무가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하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인 직장, 남초 직장, 여초 직장에 근무하는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 차이를 비교한다면 어떠한 환경에 종사하는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불편해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남성 동성애자가 처한 환경을 파악하는 연구는 표소휘 등(2022)이 정리한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성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숨기고 살아감'과 사회적 요인인 '가까운 사회적 관계 내에서(학교, 직장) 적대적 반응(따돌림, 혐오, 폭력)을 경험함'과 '사회문화 제도적인 차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을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제도적인 차별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고안할 수 있겠다. 더불어, 남성 동성애자의 스트레스 대처 반응도 같이 확인한다면 남성 동성애자가 불편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또는 좌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이성애불편감을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문화가 문항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일단, 원 척도에서 미국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차이있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제외하였다. 대표적으로 문항 분석과정에서 제외한 문항5 '이성애자들이 자주 가는 실내운동시설(헬스장)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를 예시한다. 한국은 목욕탕, 사우나에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일이 많아, 동성 신

체를 노출하는 일들이 성장 과정에서 갖게 일어난다. 1차 파일럿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동성애자는 이성애자 위주의 실내운동시설(헬스장)이나 화장실에 가는 게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집단주의 또는 가족주의, 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없었다. 정성조와 이나영(2018)의 군대 내 동성애 혐오 재생산을 염두하면 남성 동성애자가 군복무 중 이성애불편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연구 계획으로 이성애불편감의 질적 경험을 수집하고, 문항을 추가 개발하려 하였으나 연구의 진행 과정상 척도 타당화를 먼저 진행하여 문화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척도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가 남성 동성애자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척도의 문항을 20~30대 중심으로 표집하여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 동성애자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남성 동성애자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더불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한 표집은 남성 동성애자가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많은 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문하지만 표집한 모두가 현실상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진 않는다. 즉, 본인이 동성애자이지만 동성애자와의 최소한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표본은 수집하지 못하였다.

셋째, 전통적인 남성성 또는 남성의 성 역할 갈등과 이성애불편감과 관계성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다. 남성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과 남성으로의 성 역할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며 이것이 이성애불편감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남성

성에 대한 변수와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며 표본 수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모집 표본은 일반적으로 문항의 10배가 기준이고 100~200명 사이를 보통으로 모으는 편이다. 연구 2에서 K-HGM 13개의 문항을 153명에게 측정하여 모형적합성을 확인하였지만, 200명에 가까운 조금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할 수 있었다면 더욱 대표성을 가진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남성성 또는 남성의 성 역할 갈등과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이 직접적으로 남성 동성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성 동성애자의 이성애불편감에 어느 변수가 더 영향이 큰지 살펴볼 수 있겠다. 이성애불편감으로 남성 동성애자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소수자 스트레스 모형에 대입하여 남성 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이성애불편감의 경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모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의 확장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동성애자 뿐 아니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이성애불편감 경험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LGBT)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개발을 하여, 이성애불편감이라는 척도를 남성 동성애자에 준하지 않고 전체 성소수자로 확장시킬 수 있겠다. 이성애불편감의 정도를 남성, 여성 성소수자와의 비교, 또는 성적 지향(동성애자, 이성애자), 성별 정체성(시스젠더, 트랜스젠더)으로 비교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성소수자

의 적응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이성애불편감 연구의 한국-미국 등 타 국가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가족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사이에서 이성애불편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희망한다. 가족주의와 집단주의 하에서 타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침범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성소수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자연스러운 노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에서 성장한 성소수자는 이성애불편감의 정도가 높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나, 실질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41(5), 930-941.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승섭, 이호림, 이해민, 박주영, 최보경 (2016). 2016 한국 성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건강연구: 자살과 관련한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기초조사보고서.
-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 김청택 (2016). 탐색적 요인분석의 오·남용 문제와 교정. *조사연구*, 17(1), 1-29.
- 김형지, 김향숙 (2018).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2), 185-220.

- 김혜민, 유금란 (2021). LGB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자의 마이크로어그레션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01-1526.
- 박도담, 유성경 (2019). 한국판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orean version of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Scale; K-SOMS)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99-927.
-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동성애자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997-1021.
-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77-197.
- 신승배 (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380-415.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우성범 (2019).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은 무엇인가?: 남성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3), 203-229.
- 이가희 (2010). 한국 사회 속 여성 동성애자들의 반동성애 폭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원, 연규진 (2020). 성소수자(LGB)의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정체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수자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39-666.
- 이수비, 신예림, 윤명숙 (2022).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2), 369-389.
- 이수원 (1995).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서: 문화와 인지: '타인 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한국심리학회 세미나 자료, 1995(1), 188-195.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선, 권보민, 이동훈 (2012).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29-147.
- 이혜민 (2022). Gender minority stress and health among Korean transgender adults: rainbow connection project II.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민경 (2014).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연옥, 윤현숙 (2017). 노년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 사회적 지지, 삶에 대한 통제감, 우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2(1), 123-149.
- 장서연, 김정혜, 김현경, 나영정, 정현희, 류민희, ... 한가람 (2014).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년도 인권 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 547-561.
- 정성조, 이나영 (2018).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문화와 사회*, 26(3), 83-145.
- 표소휘, 이슬아, 장애경, 이준우, 이은비, 양은주 (2022). 국내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2), 241-272.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 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채윤 (2013).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연구*, 30, 15-38.
- Beavers, A. S., Lounsbury, J. W., Richards, J. K., Huck, S. W., Skolits, G. J., & Esquivel, S. L. (2013).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educational research.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8(1), 6.
- Bettinsoli, M. L., Suppes, A., & Napier, J. L. (2020).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 women in 23 countri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5), 697-708.
- Bos, H. M., Picavet, C., & Sandfort, T. G. (2012). Ethnicity, gender socialization, and children's attitudes towards gay men and lesbian wom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7), 1082-1094.
- Bosson, J. K., & Michniewicz, K. S. (2013). Gender dichotomization at the level of ingroup identity: What it is, and why men use it more than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3), 425.
- Brooks T. R., Reysen. S., Shaw. J. (2017). Smashing back door in: Negative Attitudes toward Bottoms within the Gay Community. *World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4(2).
- Bucher, J. (2014). "But He Can't Be G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sculinity and Homophobia in Father-Son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Men's Studies*, 22(3), 222-237.
- Chester M. R. (2018). *Gay men's Experience of Heterophobia: A Mixed-methods Investig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onnell, R. W. (2000). *The men and the boys*. Cambridge: Polity.
-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1), 7.
- DeSouza, E. R., Wesselmann, E. D., & Ispas, D. (2017). Workplace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Subtle and not-so-subtle.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34(2), 121-132.
- Eom, Y. J., Lee, H., Kim, R., Choo, S., Yi, H., & Kim, S. S. (2022). Discrimination keeps transgender people awake at night: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of 583 transgender adults in South Korea. *Sleep health*, 8(6), 580-586.
- Feinstein, B. A., Goldfried, M. R., & Davila,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lesbians and gay men: An examination of internalized homonega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as potential mechanisms.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0(5), 917.*
- Fergusson, D. M., Horwood, L. J., & Beautrais, A. L. (1999). Is sexual orientation related to mental health problems and suicidality in young peo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10), 876-880.*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aboni, M., & Cooper, D. (1989). Further validation of three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Psychological Reports, 65(2), 595-600.*
- Haldeman, D. C. (2006). Queer eye on the straight guy: A case of gay male heterophobia. In M. Englar-Carlson & M. A. Stevens (Eds.), *In the room with men: A casebook of therapeutic change* (p. 301-31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rek, G. M. (2004). Beyond "Homophobia": Thinking About Sexual Prejudice and Stigma in the Twenty-First Century.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A Journal of the NSRC, 1(2), 6-24.*
- Hudephol, A. D., Parrott, D. J., & Zeichner, A. (2010). Heterosexual men's anger in response to male homosexuality: Effects of erotic and non-erotic depictions of male-male intimacy and sexual prejudice. *Journal of Homosexuality, 57(8), 1022-1038.*
- Hudson-Sharp, N., & Metcalf, H. (2016, 7, 21). *Inequality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Groups in the UK: A Review of Evidence*.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equality-among-lgbt-groups-in-the-uk-a-review-of-evidence>
- Hunt, C. J., Fasoli, F., Carnaghi, A., & Cadinu, M. (2016). Masculine self-presentation and distancing from femininity in gay men: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masculinity threat.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7(1), 108.*
- Jewell, L. M., & Morrison, M. A. (2012). Making sense of homonegativity: Heterosexual men and women's understanding of their ow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 gay men.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9(4), 351-370.*
- Keillor, B. D., Owens, D., & Pettijohn, C. (2001). A cross-cultural/cross national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and socially desirable response bias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3(1), 1-19.*
- Kline, R. B. (2005).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rd ed.)*. Spring Street, NY. Guilford publications.
- Levant, R. F. (2011). Research in the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using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s a frame work. *American Psychologist, 66(8), 765.*
- Lewis, R. J., Derlega, V. J., Berndt, A., Morris, L. M., & Rose, S. (2002). An empirical analysis of stressors for gay men and lesbians. *Journal of Homosexuality, 42(1), 63-88.*

- Lingiardi, V., Baiocco, R., & Nardelli, N. (2012). Measure of internalized sexual stigma for lesbians and gay men: A new scale. *Journal of Homosexuality, 59*(8), 1191-1210.
- Lowe, M., Khan, R., Thanzami, V., Barzy, M., & Karmaliani, R. (2018). Attitudes toward intimate partner "honor"-based violence in India, Iran, Malaysia and Pakistan.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10*(4), 283-292.
- Lyons, B. H., Walters, M. L., Jack, S. P. D., Petrosky, E., Blair, J. M., & Ivey-Stephenson, A. Z. (2019). Suicides Among Lesbian and Gay Male Individuals: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t Death Reporting System.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6*(4), 512-521.
- Madon, S. (1997). What do people believe about gay males? A study of stereotype content and strength. *Sex roles, 37*(9), 663-685.
- Maliangkay, R. (2010, 12, 3). *The effeminacy of male beauty in Korea*. IIAS Newsletter, 55, 6-7. Retrieved from <https://www.iias.asia/the-newsletter/article/effeminacy-male-beauty-korea>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
- Meyer, I. H. (2015). Resilience in the study of minority stress and health of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2*(3), 209.
- Mitchell, R. W., Phipps, B. R., Voignier, D., Henson, C., & Ellis, A. L. (2001). Gender Related Attributions and the Gay or Lesbian Label.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0*(1), 74-81.
- Mortel, T. F. (2008). Faking it: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in self-report research.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40-48.
- Mulick, P. S., & Wright Jr, L. W. (2002). Examining the existence of biphobia in the heterosexual and homosexual populations. *Journal of Bisexuality, 2*(4), 45-64.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14*(5-6), 335-350.
- Pachankis, J. E., Goldfried, M. R., & Ramrattan, M. E. (2008). Extension of the rejection sensitivity construct to the interpersonal functioning of gay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2), 306.
- Parent, M. C., Rochlen, A. B., & Wille, L. (2019). Precursors to heterophobia: An examination of temporal sequence among a sample of gay me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0*(4), 647.
- Provence, M. M. (2016).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Gay Male heterophobia*.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Provence, M. M., Parent, M. C., Rochlen, A. B., & Chester, M. R. (2019). Development of the Gay Male Heterophobia Scal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0*(1), 44-54.
- Provence, M. M., Rochlen, A. B., Chester, M. R., & Smith, E. R. (2014). "just one of the

- guys”: A qualitative study of gay men’s experiences in mixed sexual orientation men’s group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5(4), 427-436.
- Ran, M.-S., Hall, B. J., Su, T. T., Prawira, B., Breth-Petersen, M., Li, X.-H., & Zhang, T.-M. (2021). Stigma of mental illness and cultural factors in Pacific Rim region: A systematic review. *BMC psychiatry*, 21(1), 1-16.
- Robinson, J. L., & Rubin, L. J. (2016). Homonegative microaggress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0(1), 57-69.
- Roberts, A. L., Austin, S. B., Corliss, H. L., Vander Morris, A. K., & Koenen, K. C. (2010). Pervasive trauma exposure among US sexual orientation minority adults and risk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12), 2433-2441.
- Sánchez, F. J., & Vilain, E. (2012). “Straight-Acting Gays”: The relationship between masculine consciousness, anti-effeminacy, and negative gay identit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1(1), 111-119.
- Scharer, J. L., & Taylor, M. J. (2018). Coping with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nd alcohol use.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22(3), 261-279.
- Shelton, K., & Delgado-Romero, E. A. (2013).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The experienc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queer clients in psychotherapy.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S), 59-70.
- Shidlo, A. (1994). Internalized homophobia: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in measurement. In B. Greene & G. M. Herek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sbian and gay issues*, Vol. 1. *Lesbian and gay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 176-205). Sage Publications, Inc.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John Wiley & Sons Inc.
- Taywaditep, K. J. (2002). Marginalization among the marginalized: Gay men’s anti-effeminacy attitudes. *Journal of Homosexuality*, 42(1), 1-28.
- Thepsourinthone, J., Dune, T., Liamputtong, P., & Arora, A.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Masculinity and Internalized Homophobia amongst Australian Gay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5), 5475.
- Um, N., & Dong, H. K. (2019). Effects of gay-themed advertising among young heterosexual adults from US and South Korea. *Social Sciences*, 8(1), 17.
- White, S. M., & Franzini, L. R. (1999). Heteronegativism? The attitudes of gay men and lesbians toward heterosexuals. *Journal of Homosexuality*, 37(1), 65-79.
- Woodford, M. R., Chonody, J. M., Kulick, A., Brennan, D. J., & Renn, K. (2015). The LGBTQ Microaggressions on Campus Scale: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62(12), 1660-1687.
- Woodford, M. R., Howell, M. L., Kulick, A., & Silverschanz, P. (2013). “That’s so gay”: heterosexual male undergraduates

- and the perpetuation of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on campu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2), 416-435.
- Woodford, M. R., Kulick, A., Sinco, B. R., & Hong, J. S. (2014). Contemporary heterosexism on camp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LGBQ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accepta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4(5), 519.
- Wright, A. J., & Wegner, R. T. (2012). Homonegative microaggressions and their impact on LGB individuals: A measure validity study.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4(1), 34-54.
- Yi, H., Lee, H., Park, J., Choi, B., & Kim, S. S. (2017).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I. *Epidemiology and health*, 39, e2017046.
- 논문 투고일 : 2022. 10. 20
1 차 심사일 : 2022. 10. 25
2 차 심사일 : 2022. 12. 05
게재 확정일 : 2022. 12. 18

A Validation Study on Korean version of Heterophobia scale for Gay male

Kim Joon Hyun

Yu Kum La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Heterophobia Scale for Gay Male (HGM). Heterophobia refers to the rejection, fear, and avoidance that sexual minorities feel against of heterosexuals. The three subscales of HGM assesses the unease/avoidance, disconnectedness, and expected rejection from with heterosexual male. To validate the Korean HGM, item translation,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From the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GM(N=213), per 13 items, a 3-factor model consisting of 13 items were determine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goodness of fit of the 3-factor structure of the K-HGM (N=153) and showed adequate model fit, K-HGM showed adequate the internal consistency,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Criterion validity was good with other related scales (K-SOMS, K-MISS-G, SDS-9, and RS). In conclusion, the K-HGM is a valid measure of heterophobia for gay male within the Korean population.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practical us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heterophobia, homosexual, gay, sexual minority, scale, validation